

인구 정점 3년 당겨진 2028년...올해부터 자연감소 시작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발표

2028년 5194만명 기록 후 감소...2044년 5천만명 아래로
올해 출생 30만9천명<사망 31만4천명...“출산율 급감세”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기존 예측치보다 3년 앞당겨진 2028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 2017년 5136만명 수준에서 2028년 5194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이 중간 수준일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중위 추계)의 시나리오다. 중위 추계에선 합계출산율이 기준 시점인 2017년 1.06명에서 2021년 0.86명까지 감소한 후 2067년 1.27명으로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청은 지난 2016년 발표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인구 정점을 2031년(5296만명)으로 예측했었다. 5년 전인 2011

만명 이후 지속해서 줄어 2002~2017년엔 40만명대 수준이었는데, 2017년부터 30만명대로 급감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2년부터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율 수준이 지속되다 지난해 역대 최초로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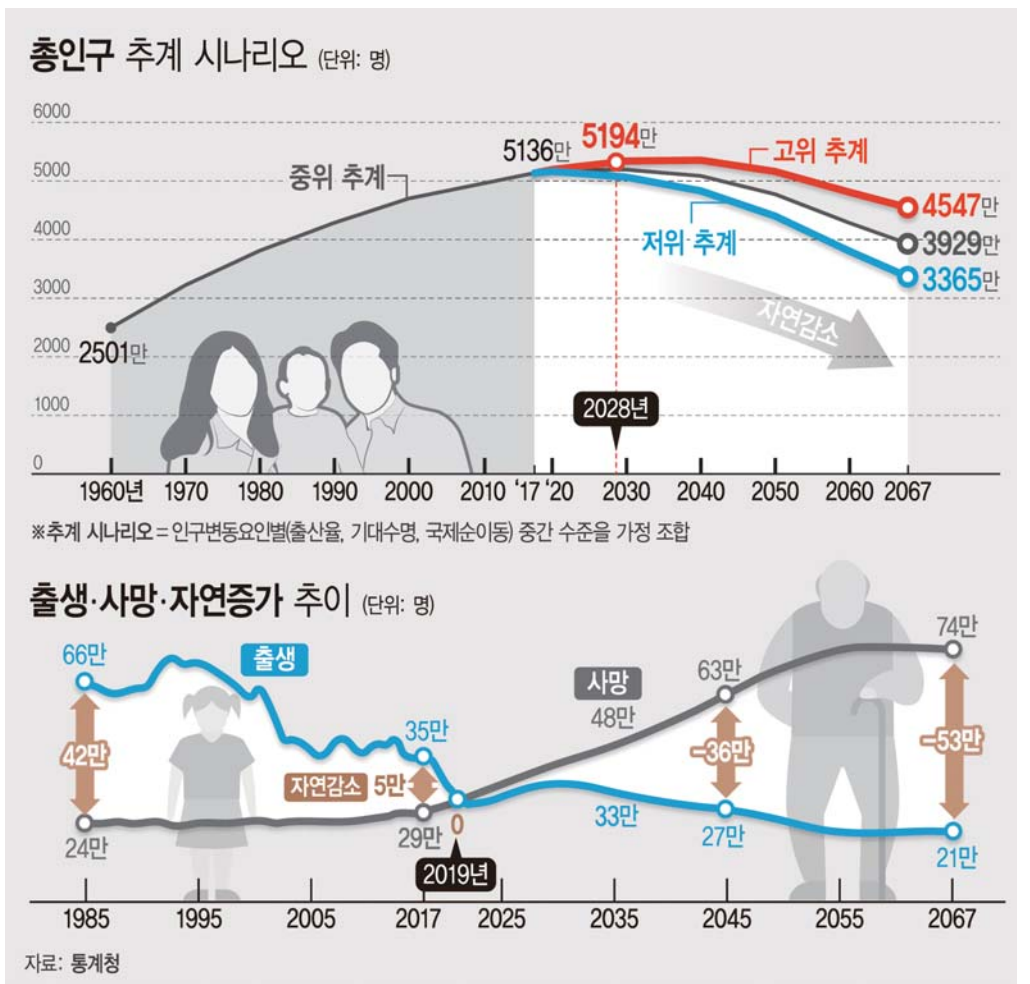
중위 추계 시나리오 상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 기간 30만9000명의 출생아가 태어나고 31만4000명이 사망해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3년 전에는 이 시기를 2029년으로 전망했었는데, 이번 특별추계에서 10년 당겨졌다. 이후에도 출생아는 감소하고 사망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돼 2067년은 21만200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74만2000명이 사망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기존 추계의 기준 시점인 2015년까지는 출산율이 다소 안정적이었으나 2016년부터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번 추계에는 이러한 급격한 추세 변화가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가정이 반영됐다”며 “출생아 수 급감으로 인구 정점 시점보다 자연감소 시점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인구 정점(2028년)과 자연감소시점(2019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제 이동에 의한 인구 증가분 때문이다. 중위 추계 상 국제순이동은 2017년 19만1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절반 수준인 8만2000명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까지 7만명대, 2022년까지 6만명대, 2025년까지 5만명대, 2028년까지 4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과장은 “인구가 정점의 언저리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결혼 이민이나 재외동포 등 정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유입 인구 수가 정점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매년 평균 7~8만명 정도의 인구가 국제 이동으로 순유입되고 있다”고 했다.

합계출산율이 2032년까지 0명대를 유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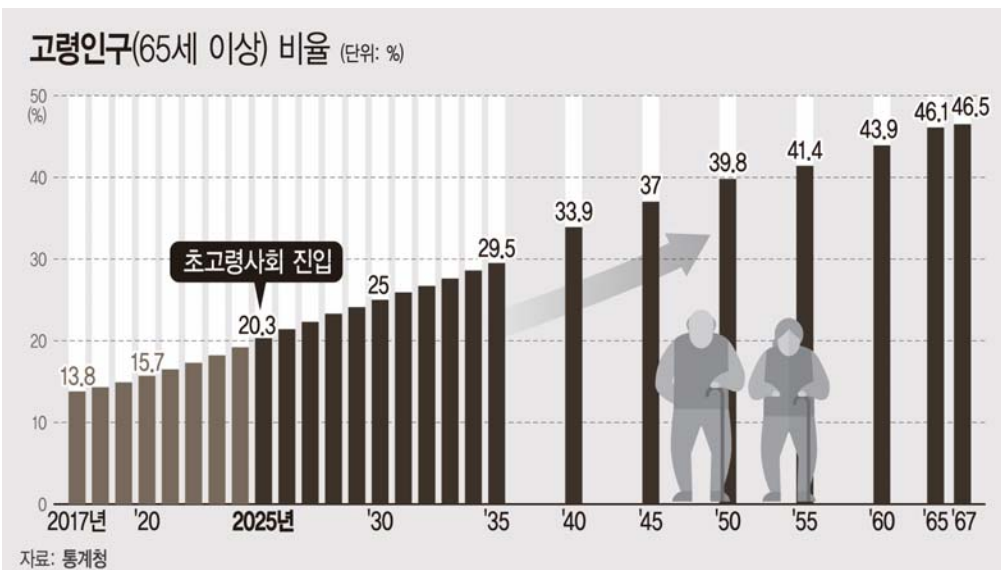
는 초저출산 상황을 가정한 저위 추계 상 인구 정점 시점은 당장 올해다. 총인구는 5165만명을 기록한 후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1972년 수준인 3365만명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자연 감소 시점은 저위 추계를 가정해도 올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8만200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32만7000명이 사망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김 과장은 “중위 추계에 지금의 저출산 상황이 충분히 반영됐다. 중위 추계상으로도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6명까지 떨어지

다”며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내려가는 저위 추계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합계출산율이 0.8명 이하로 내려간 국가는 없다”고 언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홍콩, 피카고, 대만 등 도시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0.9명 이하로 내려간 적은 있었지만, 0.8명대로 내려간 사례는 없다.

반면 높은 수준의 출산율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인구 정점 시점은 2036년(5375만명)으로 늦춰진다. 자연 감소 시점은 2032년이 될 전망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40년 후엔 부양비 OECD중 최고



6년 만 지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20.3%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사회에 들

통계청, 2025년 65세 이상 인구 1051만명...전체 인구의 20.3%
중위연령, 2065년 60세 넘을 듯...2056년부터 노인, 유소년 5배 ↑

어선 후 18년 만인 지난해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된 셈이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년 전인 2016년 당시 추계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을 2026년으로 전망했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연령을 나타내는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였는데, 2031년에는 50세를, 2065년에는 6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연령이 20세를 넘은 시점은 1976년이었고 이후 1997년, 2014년에 각각 30세, 40세를 넘었다. 통계청은 2017년 총인구의 50%가 42세 이상으로 이뤄졌었지만, 50년 후에는 62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17년 105.1명을 기록했었다.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처음 추월한 시점이다. 노령화지수는 이후에도 2026년 206명, 2056년 502.2명으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2056년부터는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5배 이상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 저출산으로 유소년 인구가 줄면서 유소년 부양비는 2017년(17.9명)과 유사한 17.8명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노년 부양비는 이 기간 18.8명에서 102.4명으로 5.5배나 높아질 전망이다.

2017년 기준 총부양비는 OECD(2015년 기준)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65년에는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 기간 고령인구 비중도 13.8%로 낮은 편이었다가 46.1%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인 73.2%에서 45.9%로 최하 수준으로 떨어진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